

일자리 펼쳐놓은 강진에 '청년열풍' 분다

청년연합회 '청춘어람' 구성...가업 2세대 경쟁력 키워 지역 맞춤형 소득창출로 귀농 잇따르며 활기 불어넣어 조례 제정 등 체계적 지원...강진군 청년공약 최우수상

■ 박정웅(39)씨는 고향 강진으로 귀농한 뒤 더 바빠졌다. 귀리, 외송, 마카 등을 키우며 몰랐던 농사를 배우는 시간도 모자란데 드론 자격증 공부도 하고 농특산물 마케팅대학에도 다니느라 쉴 틈이 없다.

김지용(34)씨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으로 밭 1만여평을 일구며 단감농사를 짓는다. 7년 전 귀농할 때만 해도 단감 하나 키우기도 벅했지만 이제 수도작과 고사리 등 특용작물 재배로 수익을 얻는 어엿한 청년 농부가 됐다.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20대 농부 송도우(23)씨는 친구들이 고시원과 도서관에서 공부할 시험을 준비할 때 취준생 대신, 귀농을 택했다. 송씨의 선택은 얼마 뒤 3만여평에서 흑염소 200마리를 키우는 '까망누리'라는 브랜드를 개발한 청년 사업가로의 길을 열어줬다.

강진에 청년열풍이 거세다. 또래 청년들과 비슷한 삶 대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마인드로 무장하고 농촌에 활기를 띄우고 있는 청년들의 귀농이 잇따르면서다. 젊은이들이 휴먼세대를 쫓아 농촌을 '희망의 땅'으로 일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데는 강진의 '청춘어람' 프로젝트가 한몫을 했다.

◇시들어가는 농촌... 활력 UP=강진의 노인인구 비율은 7월 말 기준 31.6%다. 그나마 70%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데 젊은이들은 눈길도 주지 않으려 했다. 강진군에서는 늙어가는 농촌을 살릴 활력소가 절실했다. 농업이 좋은 직업이 되면 많은 사람이 오게 되고 그럼 농촌도 더 좋게 변하지 않을까.

강진군이 '청춘어람'이라는 청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이같은 점에서도.

'청춘어람 프로젝트'는 '청춘어람'을 결성해 청년층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강진군민자치대학과 귀농사관학교 등을 통해 청년 인재와 청년 농부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가업 2세대들이 명품가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강진군은 우선,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내 11개 읍·면 청년회를 정비하고 각 읍·면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청년연합회를 꾸렸다. 2015년 2월 꾸려진 청춘어람은 2년 만에 지역 청년들의 소중한 네트워크로 자리잡았다.

농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로였고 농촌의 변화를 앞장서 이끄는 '창농'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해준 공간이 됐다. 김지용 씨는 "다른 친구들이 어떤 비전으로 농사를 짓고 강진에서 미래를 개척하는지 알게 됐다"면서 "눈을 번쩍 뜨게 해준 게 청춘어람"이라고 말했다.

도로변 풀베기 및 독거노인 집수리, 경로잔치, 꽃동산 가꾸기 등 마을을, 농촌을 살기 좋게 가꿀 고민을 풀어내는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했다.

군은 특히 청춘어람을 단순하게 청년들 모임으로만 놓아두지 않았다. 군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농업에 문외한인 청년들이 농업 전문가, 창농(創農) 사업가로 성장하는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한 점은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군민자치대학에 ▲마량농토수산대학 ▲농특산물 마

케팅대학 ▲푸소(FU-SO) 체험과정 ▲음식문화대학 과정 등을 마련했다. 푸소(FU-SO)체험은 'Feeling-Up, Stress-Off'의 약자로 감성은 채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녹색문화대학 등에도 전문가 컨설팅, 벤치마킹 등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했다.

농업 분야가 8개 대학 11개 과정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까지 1640명의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거뒀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가업 2세 김현정(다강식당)씨는 음식문화대학에서 배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음식박람회(2015년) 장관상을 수상했다.

'나야농'(나와 아버지는 농부입니다)이라는 '가업 2세대' 모임 회장 최상훈씨는 귀농인들의 딸기 농사 멘토로 20명의 후배 농업인들에게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

'가업 2세'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점은 '신의 한 수'가 됐다. 강진군은 이들이 부모세대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고 군민자치대학 등을 통해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농촌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가업 2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강진을 연고로 한 젊은이들을 우선 공략,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 농촌에 안주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성공하면서 기반이 없는 다른 청년들의 귀농·귀촌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군은 '가업 2세' 들을 농업분야(나야농)와 서비스분야(강이회·강진군 가업2세 모임)로 나눠 선진지 견학, 가업 2세 워크숍, 전문가 맞춤 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사업'에 연계한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청년 역량 강화...경쟁력 인정=강진군의 청춘어람 프로젝트는 젊은 청년 농부들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 정책으로 인정받으며 명실상부한 우수 사례로 평가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진군을 청년문제 해소분야 최우수상 수상단체로 선정했다.

청년이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 강진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업 2세 중심 강진 청춘어람 프로젝트' 사례를 경쟁력이 있는 정책으로 꼽은 것이다.

휴먼세대를 쫓아 고향 강진으로 온 최상훈, 박정웅, 김지용, 노두섭씨 등은 청년 가업 2세들로 성공 스토리를 직접 발표, 눈길을 끌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년이 돌아오고 청년이 활동해야 강진에 미래가 있다"면서 "청년들이 신나게 강진에서 기회를 잡고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 큰 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청년문제해소분야 강진군 최우수

강진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문제 해소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청년 농업인들과 강진원 군수가 포즈를 취했다. 노두섭씨, 박정웅씨, 강진원 강진군수, 최상훈씨, 김지용씨. <왼쪽부터>



청년 농부들이 지난 7월 일본 요코하마 일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가업 2세 현장을 둘러본 후의 자연환경을 활용, 어떻게 가업을 잇고 있는지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농업인들은 틈틈이 만남의 자리를 갖고 농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강진군 청자골종가집에서 강진지역 '가업 2세 청년들'과 '청년 교류와 가업 2세 활성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